

◀기쁜 우리 날들▶ 그 분 앞에선 여자이고 싶었습니다.

아이러브스쿨



꿈 많고 욕심도 많았던 여고시절,
그 분을 향해서 100통의 편지를 적었
습니다.
설레이고 흥분된 마음을 담아서 매일
매일 한 통씩 써 갔더랬습니다.
쉬는 시간마다 달려갔던 교무실.
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분의 해맑은
웃음에 전 눈멀고 귀먹었더랬습니다.
열 일곱의 꽃다운 청춘시절에
전 그분의 제자이기보다는 여자이고
싶었습니다.

그러나, 첫 사랑은 모든 이에게 아픔이라 했던가요...
쓰라린 기억만 남겨놓고 떠나가신 그 분이
그때는 너무도 미웠었는데.....

그 시절 열 일곱의 소녀가
나이 서른을 넘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
빠른 세월과 바쁜 일상 속에서
이젠 그런 설레임마저 잊고 산지 오래입니다.

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.
말아이 담임선생님의 선물을 챙기면서 새삼 그때의 설레임을 떠올
려봅니다.
그 시절 제 맘을 설레이게 했던 그 분의 모습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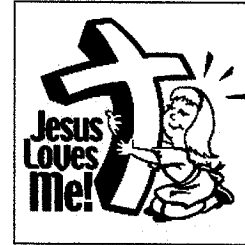
선생님 뵈고 싶습니다.

◀그뻘 그랬지 ▶ 기차길에 귀를 대며
기차길에 귀를 대면 멀리 기차 오는 소리
가 정말 들리나요? 기차길 위에 못을 올려
놓고 기차가 지나간 후 납작해진 못을 주
워들면 정말 지남철이 되나요?
기차오는 소리가 났었는지, 자석이 만들어
졌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날의 기차길가
추억만큼은 가만히 귀를 대서 다시 들려오
게 하고 싶습니다.

| | | |
|---|---|--|
|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|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 보 리 교 회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 |
| 제8권 50호 | 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 | 2006년 12월 17일 |
| ☎ 369-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 | | |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주님! 하고 불러 놓고 아무 말도 못 하였네

작자미상



내 지치고 힘들어서
주님께 말씀 드리려고
주님! 하고 불렀다가
주님 십자가 생각나서
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였네.

내 위로 받고 싶어서
주님께 말씀 드리려고
주님! 하고 불렀다가
갯세마네의 주님이 생각나서
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였네.

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
주님께 말씀 드리려고
주님! 하고 불렀다가
골고다 오르신 주님 생각나서
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였네.

힘이 들고 어려워도
주의 고난에 비할 수 없기에
차마 힘들다 말할 수 없어
주님하고 불러 놓고
아무 말씀도 드릴수가 없었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처는
치료를 가져 오지만
죄의 입맞춤은
죽음을 가져온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손이 없는 사람을 보며
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
건강한 손을 가지고
아무 일도 안 하는 손이
더 불쌍하다

주일 예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영광송 Glory | Calvary | 다 같이 |
|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| | |
| 용서의 선언 Proclaim |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| 인도자 |
| *찬송 Hymn | 23장 | 다 같이 |
| 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| 42(마5장) | |
| *신앙고백 Apostle's Creed | 사도신경 | |
| 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 | | 인도자 |
| 찬송 Hymn | 539장 | 다 같이 |
| 기도 Pray | | 박일영 장로 |
|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| 요한복음 10:10 | 인도자 |
| 성가대 찬양 Choir | | 나무십자가 성가대 |
| 설교 Sermon | 풍성케 하려 오신 주님 | 김성국 목사 |
| 찬송 Hymn | 123장 | 다 같이 |
| 헌금 기도 Offering Pray | | 인도자 |
| 응답송 Response Song | 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| 다 같이 |
| 축도 Benediction | | 김성국 목사 |

"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마련되길 원합니다"
-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-

| | |
|--|--------------|
|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\$2,673 + 한화(₩)30,000 + AU \$100 + US \$139 | 총액:\$282,064 |
|--|--------------|

◆12월 예배위원◆

| 일자 | 기도 | 차량 | 안내 |
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3 | 최득수 | 장현중 | 본당: 임혜자, 정희자 |
| 10 | 현석호 | 정덕수 | 현관: 장현중, 정덕수 |
| 17 | 박일영 | 최재학 | |
| 24 | 이광희 | 고성일 | 새교우: 이광희, 이근평 |
| 31 | 장현중 | 권용일 | 장유진 |

◆12월의 교회력◆

| 주 일 | 예배와 모임 |
|-----|---|
| 3 | 세례식 대강절시작 월초새벽기도회(1) 구역예배종강(8) |
| 10 | 믿음의 어머니기도회(12) |
| 24 | 성탄주일 성탄예배(25): 유아세례 성탄축하의 밤(24) |
| 31 |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(31) |

| | |
|---|---|
| 『교회 생활』 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| 『교회 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|
| 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| 수요예배: 7:30 pm |
| 새벽기도회: 금 5:55 | 청년부: 토 오후 5시 |

1. 교우소식

<새교우등록> 이동술, 박은경 집사(4선교회) 기원, 혜원
☎ 627-0134. 12 Armagh Rd. Blockhouse Bay

<이사> 조재근, 방명아 집사 ☎410-0402 19A Raines Ave. Forrest Hill

2. 성탄절 새벽송(구역별) <일시> 24일 어두워진 시각부터 자유롭게 시작.

*구역별로 성탄축하 새벽송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(예배후 구역장, 인도자 모임) <방법> 구역식구 가족(자녀들 포함)들이 구역가정을 돌며 찬양. 마지막 가정에서 모여 Tea Time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십시오.

3. 유아세례식 <25일 성탄절>: 나은서, 이채원, Tiffany.

4. 모임 *제2여성교회 <일시> 18일(월) 낮 12시

<장소> Restaurant 'KOJI' Teed St. New Market ☎523-3448

*연말당회, 19일(화) 저녁 6시, 교회당

5. 청년부 성전건축기금위한 판매: 『녹두부침』 (2 for \$5)

*서툰 솜씨지만 우리교회는 내손으로 건축하겠다는 젊은이들의 그 맑은 마음, 그들이 있어 희망도 있습니다.

6. 2006년 수요예배를 금주(20일)까지 드리고 방학합니다.

*2007년 1월 31일(수)에 새로운 학년 시작을 위한 "자녀들을 위한 수요예배"로 2007년 수요예배를 시작합니다.

*수요예배 방학기간, 이웃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하여 새로운 은혜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.

7. 다음주일 예배(24일 성탄주일)

<시간> 오후 1시 <장소> Pump House Manurere Ave, Takapuna

*성탄축하순서: 오후 3시.

예배 후 Tea Time과 호수주변으로 여유로운 산책 후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

8. 성탄절 예배. 25일(월) 12:30분 교회당에서 드립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어부의 기도

작자 미상

주님,
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
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,
마지막 날이 찾아와
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
바라옵건대
쓸모 없는 물고기라 여겨
내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.

한 해를 다 지나보내면서 또 그
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서글
픔이 일어납니다.
끈 풀어진 신발처럼 다시 조여
낼 수 있다면 허리를 굽혀 보겠
지만 그럴수도 없어 고개 들어
하늘만 바라봅니다.
마지막까지 주님의
그물이 나를 포기
하지 않는다기에
그것하나 믿고
세상이란 바다에서 헤매입니다.

